

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 성호경
- + 이달의 시작 성가 (2장)
- + 출석확인파 인사 나눔
- + 소공동체 기도문
-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루카 1,1-4; 4,14-21)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눕니다.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 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시다.
- ※‘말씀이 우리와 함께’를 공부하고, 공지사항,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 + 소공동체가
- + 영광송 및 성호경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함께하는 복음 묵상

루카 1,1-4; 4,14-21

한 심리학자가 두 반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서로 다른 곱셈 문제를 내주고 5초 안에 그 값을 추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늘 복음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권위'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다.” A반: $8 \times 7 \times 6 \times 5 \times 4 \times 3 \times 2 \times 1 = ?$ B반: $1 \times 2 \times 3 \times 4 \times 5 \times 6 \times 7 \times 8 = ?$ 실제 두 곱셈의 값은 같습니다. 그러나 실험결과 A반과 B반 학생들의 추정치는 완전히 다르게 나옵니다. A반 학생들의 추정치는 2,250이었던 반면 B반 학생들의 추정치는 512에 불과합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처음 나오는 숫자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추정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연산 모두 5초 내에 암산을 마칠 수 없기 때문에 초기 값으로 그 결과를 어림짐작하게 되고 당연히 A반보다 B반의 학생들이 더 적은 값을 추정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값을 추정할 때 이처럼 초기 값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을 '닻 내리기 효과(anchoring effect)'라고 합니다. 닻을 내린 곳에 배가 머물 듯이 처음 입력된 정보가 정신적 닻으로 작용해 전체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은 사람을 평가할 때도 똑같이 관찰됩니다. 즉 첫인상은 웬만하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인상이 좋은 사람이 머리가 좋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첫인상이 나쁜 사람이 머리가 좋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교활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이처럼 첫인상을 통해 들어온 정보는 그 후에 들어오는 정보에 대한 해석 지침까지도 제공하게 됩니다.

연중 제3주일인 오늘 루카 복음사가는 예수님의 공생활의 첫인상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강렬한 한 말씀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놀랍게도 오늘 복음은 여기에서 막을 내립니다. 마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드라마가 ‘다음 주에 계속...’이라는 문구와 함께 끝나버린 느낌입니다. 이제 1차 청중들인 복음서의 군중과 2차 청중들인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첫인상이 닻처럼 자리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영혼에 와 닿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이 가난한 이가 되지 못해서이고, 해방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고, 눈이 멀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고, 억압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예수님은 처음부터 나오는 상관없는 말씀만 하시는 분으로 자리하고 맙니다. 그분과의 첫 만남이 시큰둥하기에 예수님의 뒤이은 말씀과 기적들도, 그분의 수난과 죽음 심지어 부활까지도 밋밋하게 다가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 왔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아직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재미가 없고, 별로 도움도 되지 않고 어렵기만 하다고 느껴진다면 우리들 마음의 깊이부터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은총이 너무도 커서 말씀의 닻을 내리려고 해도 우리들 마음의 깊이가 너무 얕아서 그저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러나 가난하다고, 억압받고 있다고, 눈이 멀었다고, 목마르다고 고백하는 순간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은총의 밀물과 함께 파고 들 것입니다. (수원교구 1월 소공동체지에서 발췌)

공지사항

※ 천주교 산호세 한국 순교자 성당의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한 2013년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 이 달에 읽을 말씀: 신명기 12-26장

다음의 신명기 말씀을 읽고 () 안에 알맞은 낱말을 채워놓은 후 해설부분**을 읽으시오.
(**거룩한 독서 1, 121-126쪽, 정태현, 한남성서연구소, 2002)

1. 예배의 쇄신

신명 12,1: 이것이 너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언제나,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땅에서 ()하여 실천해야 할 ()들과 ()들이다.

신명 12,3-5: 그들의 제단들을 허물어뜨리고 그들의 기념기둥들을 부수며, 그들의 ()들을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을 두시고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하시는 곳을 찾아가야 한다.

해설: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합의하여 결정한 장소에서만 하느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저마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가까운 산당에 모여 야훼께 제사를 바치고 그곳의 사제들에게 십일조는 민족의 단일성을 해치고 성행하는 가나안 토착민들의 종교와 뒤섞일 위험이 있다. 신명기 저자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이 머무르는 곳이며 하느님의 이름과 신들의 이름은 결코 공존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신명 14,2: 이는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이며, 주님께서 너희를 ()하시어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너희를 ()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해설: 올바른 예배와 직결된 문제는 깨끗함의 유지이다. 거룩하신 하느님의 백성답게 이스라엘도 거룩하고 깨끗해야 한다.

2. 새 땅에서의 종교생활과 사회생활

신명 14,28-29: 너희는 세 해마다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을 모두 가져다가 너희 성 안에 저장해 두어라 . 그러면 ()과 ()과 ()와 ()가 와서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그러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하는 일에 ()을 내리실 것이다.

해설: 이스라엘이 새 땅에서 살려면 종교적 삶과 사회적 삶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이 두 가지 삶이 분리될 수 없으며 십일조는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요구에도 사용된다.

신명 15,1 : 너희는 일곱 해마다 ()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

신명 15,7-8: 너희 동족 가운데 ()가 있거든, 가난한 그 동족에게 매정한 마음을 품거나 ()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

해설: 가난이 없는 이상적 세상은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 빚을 주고받는 제도는 가난한 형제를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신명 16,12: 너희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정을 ()하여 ()해야 한다.

해설: 소외된 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근거는 그들도 이집트에서 종노릇을 하였고 하느님의 도움으로 오늘날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3. 율법의 해석

신명 26,16: 오늘 주 너희 하느님께서 이 규정과 법규를 실천하라고 너희에게 명령하신다.

너희는 ()을 다하고 ()을 다하여 그것들을 ()하고 ()해야 한다.

해설: 모세는 신명기 법전(21-26장)을 다 선포한 후 신명 26,16의 말씀으로 주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충성을 당부한다.

◆ 말씀과 생활 나누기

신명기에서 하느님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기억하여라”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서로 나눠 봅시다.

소공동체 기도문

○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엠미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눔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뵈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소공동체가

기도하녀...

정수원 작곡
정수원 편곡

하느님 백성 자녀들아! 모두 모여라

D A Bm G Em A7

우리 의 삶은 주님의 것 함께 노래하자

G D Em B7 A7

종-기 하고 봉사하자 세상 모두에게

D A Bm G Em Bm A7

마 음 보-아 기도하고 함께 나가자 천국으로

G D Em A7 D B7

하느님 사랑이 가득한 곳 우리 구 역 반공동체

G D Em A7

하느님 사랑이 넘치는 곳 우리 구 역 반공동체

G D Em A7 D